Unlikely heroes: Tabitha / Dorcas – Sermon Notes

Unlikely heroes – 5. Tabitha / Dorcas – Sermon Notes

Title: A devoted worker who loved the poor

Scripture: Acts 9:36-42

Date preached: April 28th 2024

Scripture: Acts 9:36-42

36 At Joppa there was a certain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is translated Dorcas. This woman was full of good works and charitable deeds which she did. 37 But it happened in those days that she became sick and died. When they had washed her, they laid *her* in an upper room.

38 And since Lydda was near Joppa, and the disciples had heard that Peter was there, they sent two men to him, imploring *him* not to delay in coming to them. 39 Then Peter arose and went with them. When he had come, they brought *him* to the upper room. And all the widows stood by him weeping, showing the tunics and garments which Dorcas had made while she was with them. 40 But Peter put them all out, and knelt down and prayed. And turning to the body he said, "Tabitha, arise." And she opened her eyes, and when she saw Peter she sat up. 41 Then he gave her *his* hand and lifted her up; and when he had called the saints and widows, he presented her alive. 42 And it became known throughout all Joppa, and many believed on the Lord.

36 한편 옵바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 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시업을 많이 하였다. 37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사체를 씻어서 이층에 안치하였다.

38 옵비에서 멀지 않은 룻디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39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옵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이층방으로 안내하였다. 괴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기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 주었다.

40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사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41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괴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 주었다. 42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욥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Introduction and review

This is our fifth sermon looking at unlikely biblical heroes. The first four all appeared in the Old Testament. Today's unlikely hero is different. We find her amazing story among the pages of the New Testament. In this sermon we will consider the story of Tabitha also known as Dorcas. She appears just twice in scripture in Acts chapter 9. Before we look at her story let us briefly review last week's unlikely hero.

Last week we looked at the story of Bezalel. I would hazard a guess that unless you are an expert on obscure biblical characters his story was new to you.

The fact that he may not be well known should not detract from his valuable contribution to God's Kingdom. Over the centuries there have been many valuable and important contributions made by people whose names have long been forgotten. Forgotten I should add to human beings. These people who served God in all manner of ways were not forgotten by God. When these valuable saints died they were welcomed into eternity and commended by God for their loyal service. Bezalel's name of course is neither lost nor forgotten. His name and the the tasks that He was called to perform are recorded in the bible.

Bezalel is mentioned by name on eight occasions in scripture. He is mentioned six times in the book of Exodus and once in each of first and second Chronicles. Last time we looked at the account given to us in Exodus chapter 31. Exodus begins with the people of Israel being oppressed in Egypt and ends with the building of the tabernacle. Following God's deliverance of the people from bondage in Israel Moses leads them through the wilderness to Mount Sinai. This will be the venue

for God to meet with Moses and make a covenant with the people. Following this God announces that He will come and "tabernacle" or dwell among His people. However since fallen and sinful human beings cannot come into the direct presence of God a special dwelling place for God would be needed. This was to be an elaborate tent like structure known as the Tabernacle. Later when the people were settled in Jerusalem a permanent temple would be constructed by Solomon. The tabernacle created during the wilderness wandering was to be a portable dwelling place for God.

Today we imagine tents as being lightweight temporary structures. They are designed to be basic, functional and lacking in fancy embellishments. When we go camping it's the outdoor experience we are supposed to savour. We spend as little time actually inside the tent as possible. The tent is simply a covering at night or a shelter for if it rains. Or to put it more simply, our tents are nothing special. This was not the case for God's dwelling place. As we might imagine the creator of all that exists would only come and dwell in something spectacular and breathtaking. Only the very best would suffice. Therefore God sought the finest craftsmen who would come together to turn His vision into reality. This is where we are first introduced to the master craftsman Bezalel.

We assume that prior to God's call to come and work on the Tabernacle he was already a competent craftsman (artisan). It would seem logical for God to pick someone who was already highly skilled. As I mentioned last week he may well have honed his skills working in Egypt. They as you know were fond of grandiose and elaborate feats of architecture. Whatever existing skills Bezalel possessed they would not be sufficient for the level of work God required. It was necessary therefore for God to fill Bezalel with the Holy Spirit. He was the first person recorded in scripture to be blessed in this way. This meant that he would have the inspiration and guidance of God as he worked on the Tabernacle. As I pointed out last week this was only a temporary filling. Once the work was complete the Holy Spirit departed from Bezalel. This is very different to how the Holy Spirit operates today. All those that God has chosen and elected for salvation are permanently indwelt by the Holy Spirit. Once He lives within us He does not leave us.

The work required was complex and varied. Bezalel would need to work with precious metals, jewels, fabrics and wood. It would require great expertise across a range of craft disciplines. Bezalel not only worked on the Tabernacle and all of its furnishings and fittings, but he also served as the foreman for the other workers. Under his wise and highly skilled leadership the Tabernacle was built according to God's exact designs. It would serve as a wonderful focal point for God's people. A place for them to meet with and worship God. The people were no doubt awed by its intricate designs and beautiful construction. Sometimes we take for granted how beautiful artifacts be they buildings, paintings or sculptures can enrich our lives. Beautiful things serve to point us to our awesome creator God.

He is the one who blesses human beings with the skill and ingenuity to design and bring to these things to life. So when the people of Israel looked at the Tabernacle and its furnishings what did they think? The intention was that they looked beyond these beautiful material things to the spiritual being who enabled all things to exist. So I nominated Bezalel as being an unlikely hero. I doubt many would argue with his nomination. He was able (through the Holy Spirit's help) to use his talents to serve God and bring glory to His name.

Today we will look at the story of Tabitha also known as Dorcas.

오늘은 예상치 못한 성경 영웅들을 살펴보는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처음 네 명은 모두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영웅은 다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이번 설교에서 도르기라고도 알려진 다비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녀는 사도행전 9 장에서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지난 주의 영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브살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눈에 띄지 않는 성경 인물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의 이야기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시실로 인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의 귀중한 공헌이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오랫동안 잊혀진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귀중하고 중요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귀중한 성도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영원으로 환영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창찬하셨습니다. 물론 브살렐의 이름은 사라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행한 그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텐트를 가벼운 임시 구조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능을 갖추었지만 화려해게 장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외에서의 경험을 즐기기 위해 캠핑을 갑니다. 실제로 텐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텐트는 단순히 밤에 잠을 자거나 비가 올 때 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텐트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장엄하고 숨막 히도록 이름다운 곳에 거하심이 당연합니다. 오직 최고만이 그분께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현실로 재현할 최고의 장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장인 브살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그는 이미 유능한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도로 숙련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알아면서 가술을 연미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웅장하고 정교한 건물들을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브실렐이 어떤 가술를 가지고 있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의 수 준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브실렐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축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막에서 알할 때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일사적인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 임무가 끝난 후 성령께서는 브실렐에 게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부르고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일단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작업은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브실렐은 귀금속, 보석, 직물 및 목재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다양한 공예 분야에 걸친 뛰어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브실렐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일꾼들도 감독했습니다. 그의 자혜롭고 고도로 숙련된 지도력 이래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건축되었습니다. 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복잡한 디자인과 이름다운 건축물에 경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물, 그림, 조각 등 이름다운 유물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름다운 것들은 우리를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기술과 독창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리엘 백성들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이름다운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존재 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실렐을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의 재능을 사용하여 하

오늘은 도르기라고도 알라진 대비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cts background

Our previous four unlikely heroes have all been found in the Old Testament. Today we move into the New Testament to look at the amazing story of Tabitha. I think that her story is quite well known and familiar to many Christians. We find her account recorded in the Book of Acts. So before we look at Tabitha let's take a little time to talk about the historic setting and cultural context behind what we are reading.

The book of Acts tells the story of the birth and expansion of the church. It records the transition from the Church from being an almost exclusively Jewish concern into becoming one that welcomed and embraced Gentiles. The book begins with Jesus promising the arrival of the Holy Spirit. Shortly after this it describes His ascension to heaven and the beginning of the "church age." It ends with the Apostle Paul arriving in Rome under Roman arrest to present his case before Caesar.

The emphasis of the book is the fulfi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As Matthew records Jesus saying in his gospel.

사도행전의 배경

이전의 네 명의 예상치 못한 영웅은 모두 구약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다비다의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꽤 잘 알려져 찬숙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비다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즉 대시명의 성취입니다.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Amen. (Matt 28:19-20)

The Lord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to take the message of good news out into the world. I often picture this occurring rather like the ripples on a pond when you throw a stone. At first the Apostles witnessed in Jerusalem (chapters 1-7). This was where the first Christians met and worshipped. Then the ripples spread as the gospel goes out into the surrounding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chapters 8-12). Over time the ripples spread further still. The Apostle Paul ably assisted by others takes the gospel out into Asia and Europe (chapter 13 onwards). It was a time of great excitement and dramatic action. The Book of Acts is a thrilling page turning account. Everywhere the gospel went it provoked a reaction. This is to be expected. People cannot fail to be impacted when told the good news of salvation that comes exclusively through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No other name provides the hope of salvation. Therefore, some responded well and were open to the message. Early house churches sprang up and everyday people began to change their communities. In other places the gospel was met with resistance and hostility. People didn't like being told their worship of pagan idols was worthless or futile.

During this period many signs and wonders accompanied the growth of the church. As we saw recently at the conclusion of Mark's gospel this had been prophesied by Jesus.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혀라고 명량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돌을 던지면 연못에 파문이 이는 것과 같다고 상상합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증가했습니다.(1-7 장). 이곳은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유대와 사미리아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 피급력이 퍼졌습니다.(8-12 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력자들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13 장 이후). 이는 큰 흥분과 극적인 행동의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페이지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반응이 알아났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오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소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였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 가정교화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변화사키기 사직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저항과 작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지 없고 쓸데없다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 마기복음의 결론 부분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안하신 것이었습니다.

17 And 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with new tongues; 18 they will take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thing deadly, it will by no means hurt them; 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Mark 16:17-18)

The Apostles and other disciples were permitted by God to perform these signs as a validation of their message. The signs served as proof or evidence that they were God's messengers or representatives. All signs are designed or purposed to point to something beyond the sign itself. We know this when we drive our cars. A sign warning of an oncoming sharp bend warns us to prepare. The triangular sign with the right leaning arrow itself is not important. What is important is that we heed the sign and slow down. So when someone was cured of an illness by one of the Apostles they were supposed to look beyond the person who had physically laid on their hands or prayed. They were supposed to look to the source of the healing power; to God Himself. This is certainly true of the miracle we will consider today.

As we read through Acts it soon becomes apparent that some of the Apostles are singled out and their particular efforts emphasised. The book begins by focusing on the work of Peter. He dominates chapters 1 to 12. In chapter 9 we are first introduced to Saul (later to become known exclusively by his Greek name Paul). From chapter 13 onwards it is Paul and his missionary journeys that take precedence. This is not to suggest that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stopped working. They certainly did not. They continued on in their faithful endeavours to build the church. But Luke is focusing on the efforts of Paul and those who assisted him.

17 민는 시림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때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18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시림에게 손을 얹으면 나올 것이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이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리는 시실을 증가했습니다. 모든 표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기를 기리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카브를 경고하는 사인은 곧 다가오는 급카브를 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진 화살표가 그러진 삼각형 표자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중 한 명이 누군가의 병을 치유할 때 손을 얹거나 기도를 한 그

사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펴볼 기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oday we are looking at events contained in chapter nine of the Book of Acts. This chapter is packed with action and incident. It begins with Saul's dramatic encounter with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The now blinded Saul is then led to Damascus where he meets Ananias. Ananias cures him of his temporary blindness and then Saul is baptised. He then begins to preach Christ in the local synagogues. This provokes great anger and a plot is hatched to kill him. Saul escapes in a large basket and flees to Jerusalem. Whilst in Jerusalem he meets the disciples and earns their trust and approval. Emboldened by their support Saul continues to preach boldly which again makes him a target. A group of Hellenists want to kill him. In order to keep him safe he is taken to Caesarea and then by ship to Tarsus. Following this there is a respite from persecution and attack and the church thrives.

The action then shifts to outline what the Apostle Peter had been doing. He had been travelling around Judea and Samaria preaching the gospel message. In the town of Lydda he met and healed Aeneas a man who had been paralysed and bedridden for eight years. It is whilst Peter is staying in Lydda that he is approached by two men who urge him to come quickly with them back to the town of Joppa. They want Peter to come and see the subject of our study today; Tabitha. Let's get into her story now.

오늘은 사도행전 9 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액션과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물이 그라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사건으로 사작됩니다. 눈이 멀게 된 사물은 다메섹으로 인도되고 거기에서 아마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의 일사적인 실명을 치료하고 사물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후 사물은 지역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피하기 사작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들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사물은 큰 광주리를 타고 예루실렘으로 도망합니다. 예루실렘에 있는 동안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신로와 승인을 얻습니다. 그들의 지원에 용기를 얻은 사물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피하며, 그는 다시 표적이 됩니다. 헬리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형제들이 사물을 가이사라로 데려간 다음 배를 타고 다소로 보냅니다. 그 후 박해와 공격이 그치고 교회는 번성해 갑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기록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룻다라는 마을에서 그는 중풍병으로 8 년 동안 참다에 누워 지내던 애니아를 만나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와서 빨리 욥바로 가자고 권유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주인 공인 다비다를 보러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6 At Joppa there was a certain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is translated Dorcas. This woman was full of good works and charitable deeds which she did.

Today's story takes place in the Mediterranean port city of Joppa, today's Jaffa.

Joppa is one of the oldest functioning harbours in the world. In fact its position as the only natural harbour on the Mediterranean between Egypt and Acco meant it has always been a place of great strategic importance. This significance made it an ideal place to establish the church. When lot's of people are coming and going its the ideal place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is case the

gospel message to spread. It's also worth highlighting that whilst it was a predominantly Jewish town there were a considerable number of Gentiles living there. We could say there was a strong Hellenistic flavour to the city.

Who was it that established the church in Joppa? Unfortunately I cannot give you a definitive answer. It may have been Philip. He is certainly a strong candidate. We know from the Book of Acts that he worked in this area spreading the gospel. After spending some time in Samaria preaching about Jesus he travelled north from the town of Azotus up to Caesarea Maritima (Acts 8:40). So it's certainly possible that Philip took a short detour off the coastal highway and visited Joppa. It's also possible that the church was established by today's unlikely hero; Tabitha. You will note that she is described here as being a "disciple" (*mathētria* in Greek).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New Testament where the feminine form of the Greek word translated "disciple" appears. Is Luke telling us that she was an "exceptional" follower of Christ? Was it Tabitha who had heard the gospel in Jerusalem and then fled at the start of Saul's persecution to Joppa? It's an intriguing thought. From what we read we can certainly infer that she was an important and prominent member of that early church. It may even have met in her house.

A brief note about her name. You may be wondering why she has two names. Tabitha is the Aramaic version of her name. In Greek this is translated as Dorcas. Both names mean "gazelle, antelope or deer." The term "gazelle" conjured up a far more favourable image in the ancient Jewish mind than in ours today. For example in the Song of Songs the writer uses the term to refer to their much cherished lover.

36 한편 옵비에는 다비다(그리스어로는 도르기) 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시업을 많이 하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날 자파Jaffa 로 불리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 옵비가 배경입니다.

원비는 현재도 항구로서 가능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입니다. 시실 이집트와 아코 사이에 있는 지중해의 유일한 천연 항구라는 위치는 이곳이 항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라한 이유로 인해 이곳은 교회를 세우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태하므로 정보 교환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이며, 복음 메시지가 전파되는 데도 유익합니다. 또한 이곳은 주로 유대인 도시였지만 상당한 수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헬레니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8바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빌립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피하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 동안 예수님에 대해 전도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여 아소도에서 가이사라 미리티까지 여행했습니다(행 8: 40). 그러므로 빌립이 해안 도로에서 잠시 우호하여 욥바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예상치 못한 영웅 다비다가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그녀가 "제자"(그리스어로는 마테트리아 mathetria)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제자"로 번역된 헬리어 단어의 여성형이 나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누가는 그녀가 그리스도의 "뛰어난" 추종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예루실렘에서 복음을 들은 후 사율의 박해가 시작되자 욥바로 피해났을까요?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초대 교회의 중요하고 저명한 회원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녀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에 대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이 두 개인 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비다(Tabitha)는 그녀의 이름어 이름이고 그것은 헬리어로는 도르기(Dorcas)로 번역됩니다. 두 이름 모두 "노루, 영양 또는 시슴"을 의미합니다. "노루gazelle"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다 고대 유대인의 마음에 훨씬 더 호의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아키서에서 저자는 자신이 이주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My beloved is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Song of Songs 2:9)

Make haste, my beloved, And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On the mountains of spices. (Song of Songs 8:14) So the name Tabitha or Dorcas really represents the idea of someone being **beloved** or **cherished**. That's a very good way to picture this woman. Think for a moment. What kinds of people are beloved or cherished? Only the most loving, kind, compassionate and considerate of people. That is certainly embodied in Tabitha.

We learn something very significant about what kind of person she was. We are told that she was well known and presumably much loved for all her good and charitable deeds. The term "charitable deeds" refers primarily to the giving of money, goods or services to the poor and needy. Almsgiving was highly regarded in Judaism. The fact that she was in a position to be able to give financially suggests that she was a wealthy or privileged individual. That should not detract from her generosity. It may be true that she could afford to give, but she did so out of love and compassion. She was not compelled by others but only by her devotion to Christ and His command to care for those in need.

As we think about what kind of woman Tabitha was there are three things I want you to note. The first is how she is remembered. She is recalled as being a good and Godly woman who did many good works.

The second is that her works were charitable, she paid for them out of her own pocket and gave up her own time in which to do them. Thirdly she actually <u>did the things</u> for which she is remembered.

It's certainly good to be known as someone who thinks kind and charitable thoughts, but far better to be known as putting these good ideas into practice. Today sadly many people are just too selfish and self-centred to give up either time or money to aid others. They may think about doing good and helpful things for others but seldom if ever actually do them. This was not the case with Tabitha, and is why I am nominating her as an unlikely hero. Later on we will learn what exactly she did for the poor and needy. Let us find out what became of this caring woman.'

□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아닌 사슴과도 같아서 아가서 2:9)

향로운산위에있는

노류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라(이기서8:14)

그러므로 다비다 또는 도르기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또는 **소중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을 묘사하는 이주 적절 한 표현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사랑받고 소중합니까? 애정이 넘치고 친절하며 동정심 많고 사 려 깊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비다는 확실히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를 알고 있었고 그 #는 선행과 자선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선 행위 charitable deeds"라는 용어는 주로 가는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돈, 물품 또는 봉사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선은 유대교에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부유했음을 암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관대함을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기부할 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는 사랑과 연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는 억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헌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다바다가 어떤 여성이었는 지 고려할 때 세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기억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선하고 경7한 여성으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의 행위가 자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셋째, 그리는 자신이 기억되는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37 But it happened in those days that she became sick and died. When they had washed her, they laid *her* in an upper room.

Sadly Tabitha is truck down by some unnamed sickness and dies. Please note that Luke, a medical doctor affirms that she was dead. She was not in a coma or just appearing to be dead. We spoke in some detail when we covered the death of our Lord and saviour about Jewish death rituals. The climate in Israel meant that burials were undertaken quickly. You would not leave a body lying around for several days in that climate. The stench would be unbearable. In fact, it was not uncommon for the burial to take place within 8 to 10 hours after death was confirmed. Ideally the body should be buried before sundown on the day the person died. However outside of Jerusalem it was not uncommon for the burial to be delayed for up to three days. This was due to the belief that the soul stayed with the body for three days after death before then permanently departing.

The first thing to be done following death was the washing of the body. This was almost always carried out by female relatives of the deceased. Or if they were not available female friends or acquaintances. Following this the body would be wrapped and anointed. At times "washing" may be used as shorthand for the whole process. Typically, following the ritual washing and anointing the body would be transported to the burial site for internment. That does not happen here which should make us pause.

What exactly is going on? As I said before Joppa had a large Gentile population. This meant it was influenced to some degree by Greek thinking and ideas (Hellenism). So is the body being laid in the upper room an expression of Gentile practices? Maybe, it may however reflect the reality that more time was needed for Tabitha's family and friends to visit and say their farewells. This would certainly be true if they lived some distance away. So as I noted previously burial could be delayed for up to three days. Or, is something much more significant happening here. Is this act demonstrating that the Christian assembly in Joppa are anticipating, or at least hoping for a miracle? Did they delay burying here because they have faith that she can be raised from the dead? Let us continue.

37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시람들이 사체를 씻어서 이층에 안치하였다.

인터껍게도 다비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그냐기 죽음을 단언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ቱ가 혼수 상태였거나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면서 유대인의 죽음 의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리엘의 가후 때문에 매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후에서는 약취가 심할 테니 며칠 동안 사례를 놔둘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망이 확인된 후 8~10 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날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매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실렘 밖에 서는 장사가 최대 3 일까지 연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뒤 영혼이 3 일 동안 몸에 머물렀다가 영원히 떠마다니다.

죽은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고인의 여성 친척이 행했습니다. 혹시 여성 친척이 없다면 여성 친구나 지인이 대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감싸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때로는 위 전체의 과정이 "세척 washing"이란 용어에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마친후 매장지로 옮겨집니다. 대비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궁금해집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욥바에는 이방인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는 그 곳이 어느 정도

그러스 사고방식과 시상(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한 것은 이방인의 관습의 영향일까요? 어쩌면 다비다의 가족과 친구들이 찾아와 작별 인사를 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례는 최대 3 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거나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닐까요? 그녀가 죽은 자 기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자체한 것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38 And since Lydda was near Joppa, and the disciples had heard that Peter was there, they sent two men to him, imploring *him* not to delay in coming to them. 39 Then Peter arose and went with them. When he had come, they brought *him* to the upper room. And all the widows stood by him weeping, showing the tunics and garments which Dorcas had made while she was with them.

When someone dies its naturally a time of great sadness and despair. Those that loved Tabitha had hoped and prayed with fervency that she might recover. Their prayers no doubt had been that God would show mercy to this faithful servant. So when their prayers went seemingly unanswered how did they react? We might imagine that they fell to the ground and gave up. But not in this case. The believers in Joppa had not given up all hope. They had heard that the Apostle Peter was in the vicinity. Why you might ask were they so excited by the fact that it was Peter? Well Peter has "some experience" which they are hoping he might bring to bear here.

Peter you see was present on all three recorded occasions in which the Lord Jesus raised individuals from the dead (Mt 9:25, Luke 7:11-17 and John 11:1-44). So are they summoning Peter because they believe he is empowered by God to perform such miracles? Some argue that they had no such expectation. The raising of people back to life was an exceptionally rare miracle, so why would they expect one now? How rare? Well let us consider the record we have in scripture. Here is a list of those raised from the dead in the bible.

38 옵비에서 멀지 않은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시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39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시림과 함께 갔다. 그가 옵비에 도착하자 시람들이 그를 이층방으로 안내하였다. 괴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기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 주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것은 당연히 큰 슬픔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다비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충실한 중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바의 신자들은 모든 희망을 바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름 이닌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라신 성경에 기록된 세 번의 시건 모두에 참석했습니다(마9:25, 눅7:11-17, 요한복음 11:1-44). 그들은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른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극히 드문 기적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드문 지 성경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The widow of Zarephath's son (1 Kings 17:17–24)

The Shunammite woman's son (2 Kings 4:18–37)

The man raised out of Elisha's grave (2 Kings 13:20–21)

The widow of Nain's son (Luke 7:11–17)

Jairus' daughter (Luke 8:40–56)

Lazarus of Bethany (John 11)

Various saints in Jerusalem (Matthew 27:50–53)

Eutychus (Acts 20:7–12)

The Lord Jesus (Mark 16:1-8)

When we consider the whole span of time covered by the bible we must admit that the raising back to life of the dead does not happen often. So why would these Christians in Joppa expect such a miracle now? Therefore some claim that they are only summoning Peter because they want him to come and comfort them in their time of loss and sadness. I'm not convinced by this argument, are you? Why hurry and urge Peter to come without delay? If they only wanted his condolences, it would make no real difference if he came in three days or a week. No I think they want him to come quickly before the soul has departed from the body.

Peter you will remember was staying in Lydda about 11 miles (17 km) away. This was normally a journey that would have taken about 4 to 5 hours on foot. There was then no time to lose. As I explained before burials, by necessity were undertaken quickly.

Two men are despatched to go and find him and beg him to come back to Joppa. Peter reacts positively and quickly to their request. They hurry back together to Joppa. When they arrive Peter is taken to the upper room which is full of the weeping widows. We are also given a really fascinating insight into some of the work in which Tabitha had been engaged. The widows proudly show Peter some of the tunics and garments Tabitha had made. Tabitha you see had been gifted by God with the ability to sew and make clothing. She had used this gift to make clothes or garments for those in need, most likely widows and their children.

It's a useful reminder to us that whatever gift or talent we have been given can be used for God's glory. Sometimes Christians are unsure of how their knowledge or skills can be used for God's service. Obvious things like musical skills can be used in the praise and worship team. If you can cook you can volunteer in the church kitchen. But what about artistic skills, gardening knowledge or an ability to fix electrical appliances. Surely these things cannot benefit God's Kingdom. Wrong! There are opportunities for all of these things to be used to help others and bring God glory. Tabitha found a way to use her skills and so can you.

Let us read on and see what happens next.

시르빗에 실던 괴부의 이들 (왕상 17:17-24)

수넴 여인의 이들(왕하 4:18-37)

일막시의 무덤에서 실이난 자(2 Kings 13:20-21)

□□□□□□□□□□□ (Luke 7:11–17)

이이로의 딸(Luke 8:40-56)

베다니의 나사로(John 11)

예루실템의 여러 성도들 (Matthew 27:50-53)

유두고(Acts 20:7-12)

주예수님 (Mark 16:1-8)

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있을 때 베드로가 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그를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서둘러서 베드로에게 지체없이 외달라고 긴청합니까? 단지 조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흘 뒤에 오든 일주일 뒤에 오든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그가 빨리 오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약 17 km 떨어진 룻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4 \sim 5$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서 옵비로 외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에 긍정적이고 산속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함께 옵비로 옵니다.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울고 있는 과부들로 가득 찬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비다가 했던 일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됩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지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느질과 옷 만드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었습니다. 그녀는 이 은사를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마도 과부와 그 자녀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싱기사켜 줍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식이나 기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산하지 못합니다. 찬양과 예배팀에서는 당연히 음악적 재능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다면 교회 주방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적 자주, 정원 가꾸기 자식 또는 전기 제품 수리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런 재능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재능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될 기회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길을 찾았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 But Peter put them all out, and knelt down and prayed. And turning to the body he said, "Tabitha, arise." And she opened her eyes, and when she saw Peter she sat up. 41 Then he gave her *his* hand and lifted her up; and when he had called the saints and widows, he presented her alive.

We come now to the healing miracle itself. Peter clears the room and then kneels down to pray. Interestingly his procedure here was almost identical to Jesus' when He raised Jairus' daughter (Mark 5:41; Luke 8:51-56). Peter begins with prayer. That should be our starting point before any endeavour. Prayer you see demonstrates our complete and total reliance upon God. He prays that Jesus will provide the power necessary to bring Tabitha back from the dead. It's a valuable reminder to us that any power, talent or expertise we may possess depends upon Jesus. Peter's prayer also serves to deflect any attention from himself. He wants all the glory to fall upon the one making this happen. He is merely the intercessor in this process. We fall into serious error when we start to believe that we are the source of any power or goodness. People often ask me to pray for them, and I am happy to do so. In fact. I love to bring your petitions before the Lord. If your prayers are answered it is because of God's goodness and mercy and not because I have any special power. Peter recognises that it is only through Jesus' power that Tabitha might be raised again to life.

He then turns to the body of Tabitha on the bed and tells her to arise. She opens her eyes, sees Peter and then sits up. He then gives her his hand and helps her stand. After this he calls the Christians who had gathered to mourn to come and see her now restored to life. Just imagine what a scene that must have been. One of absolute joy and celebration. Let us conclude with verse 42.

40 베드로는 시림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시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않았다.

이제 치유의 기적 그 자체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가 여기서 행하는 절차는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막 5:41; 누가 8:51-56). 베드로는 기도로 사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전에 우리는 기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완전하고 전적

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죽음에서 다시 살라는 데 필요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능력, 재능, 또는 전문 지식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상기사려줍니다. 또한 베드로의 기도는 그의 관심을 자신으로 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는 이 일을 행하실 분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단지 이 과정의 중보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선함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청을 주님 앞에 올려드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때문이지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후에 베드로는 누워 있는 다비다의 사신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본 다음 자리에 앉습니다. 그 후 그는 손을 내밀고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에 그는 애도하기 위해 모인 그라스 도인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라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축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42 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42 And it became known throughout all Joppa, and many believed on the Lord.

As we might imagine news of what had happened to Tabitha spread rapidly. When such an event occurs it forces people to ask themselves a fundamental question. The question is as follows, How can I explain what just happened? Some I'm sure those tried to reason what had happened away. Perhaps Tabitha wasn't really dead. Maybe she had a rare medical condition that only made her appear dead. Some people will always deny the clear evidence placed before them. Many more though when confronted by what had happened could find no adequate response. There was no natural explanation. Tabitha had been dead and now she was alive. This had to have been a supernatural act. Only God could do such a thing. As a result many put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This is of course the purpose of signs. They are intended to point people beyond the wonder itself and ask them to think of who is the real power behind it all.

And so the story of Tabitha concludes. Or I should say as far as what is recorded about her it concludes. She is mentioned just twice in scripture and we have no idea what happened to her after Acts chapter 9. We do know that God blessed her with an extended period of life. How much longer did she live? We do not know. How did he spend this additional time? Again we do not know, we are left to speculate. I'm going to give you my opinion. You are of course at liberty to disagree. You may have a completely different view.

What do I think Tabitha did after being raised from the dead? Are you ready? I think she continued doing what she had been doing before, only with even greater passion and vigour. She cared for the needy, made clothes for widows and orphans, gave alms to the poor and took every opportunity she had to share the story of how Jesus had raised her from the dead. I believe she worked tirelessly until it was time for her to die again.

What then can we say about Tabitha? What makes this simple Christian woman an unlikely hero? Well she was a woman of great compassion and faith. Her acts of kindness left a lasting impact on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in Joppa. From her example we learn the valuable lesson of living out our faith through practical acts of charity and compassion. As we saw she provided clothing for the widows and the poor. From a human perspective we might look upon this act and see it as trivial or meagre. But her efforts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ives of those she helped. She knew that by providing warm or comfortable clothing for those who were destitute, she was showing them the love of Jesus in a tangible way. She might not have impressed the elites at the top of society, but she pleased God and helped those who are close to His heart. This makes Tabitha or Dorcas an unlikely hero.

So let us conclude by examining what we can learn from the example of Tabitha. I have drawn two

Unlikely heroes: Tabitha / Dorcas – Sermon Notes

lessons from the story of Tabitha.

42 그리고 그소문이 온 왕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남을 믿었다.

다비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발생하면 시람들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부는 그 일어난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회하려고 애씁니다. 아마도 다비다가 실제로 죽었던 건 아닐거야: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게하는 희귀한 질병을 잃었을 수도 있어. 어떤 시람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분명한 증거를 항상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람들은 이런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할 지 어리둥절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은 시람들로 하여금 경이로움 그 자체를 뛰어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진정한 힘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여기서 다비다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다시 말해 그녀에 대해 기록된 내용이 여기까지 입니다. 그녀는 성경에 딱 두 번 언급되었고 사도행전 9 장 이후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생명을 안정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실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는 이 안장된 삶을 어떻게 살 있을까요? 그것 또한 모르니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텐데 물론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은 자기운데서 살아난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준비 되셨나요? 저는 그녀가 이전에 하던 일을 더욱 열정적이고 함치게 계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괴부와 고이들을 위해 옷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기호가 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다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비다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단순한 크리스찬 여성이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는 대단한 동정심과 믿음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리의 친절한 행동은 욥바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마쳤습니다. 그리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연민을 직접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거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다비다는 괴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 행위는 사소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의 선행은 그리가 도운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의 상류층 엘리트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겠지만, 그녀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가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된 이유입니다.

이제 다비다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비다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Lessons to learn

1 What will your legacy be?

Famous and influential people often fret about what their legacy will be. They worry about how they will be remembered, or what they will be remembered for. Politicians for example want to be remembered for having put into place a law or policy that changed society for the good. They want the record books to show they managed a sound economy and a period of nationwide prosperity. Kings and queens want to be remembered as being wise and noble rulers. In the past they wanted the legacy of having conquered additional lands and expanded the kingdom. Professional athletes want to be remembered for having been the best, fastest or most successful. No one wants the legacy of having always been on the losing team.

I suppose it is only natural that all of us want to leave people with a good impression and good

memories of us. None of us want people talking negatively about us when we have died. Not of course that it would matter much if they did! The older we get the more we think about such things. Again this is normal from a worldly perspective because as we age we have less time or ability to make our mark. But we are not to be wordly people. We should consider legacy from a Godly vantage point.

Let us consider for a moment Tabitha's legacy. How was she remembered by those who knew her best? The answer is very favourably. She was remembered for being **full of good works and charitable deeds.** This is how God's inspired Word records her legacy. Wouldn't that be a wonderful way to be remembered. Imagine people sitting around and speaking about you. Do you remember that person? Yes I do, they never stopped doing good things and caring about those in need.

Perhaps we are a very long way from having this said about us. Maybe we have been selfish and self-centred for a long time. But it's not too late to change. With God's help we can become less selfish and just like Tabitha think about the needs of others. Let us all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convict and guide us in ways that will result in a much more positive God pleasing legacy.

1 당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시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가죽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다지 중
요한 것은 아니지만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
에서 볼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 ㅁ
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사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시 다비다의 유산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고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이 그녀의 유산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억입니까? 사람들이 둘러앉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기억해요? 네 물론이죠 그 사람은 산한 일을 많이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려면 아마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덜 이기적일 수 있고 다비다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확신시키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2 Using what we have been given for God's glory

What unique gifts or talents has God given you? Everyone has something that they can do. In some of your cases I know what you can do and I know that you have used your gifts to bless others.

In Tabitha's case she was able to make clothes or other garments.

In her day such a skill would have been highly sought after. Perhaps she could have used it to make money. That however did not interest Tabitha. She wanted to use the skills that God had given her to bless the lives of others. She therefore made clothes for those that needed them.

During the sermon I spoke about how we should use our gifts, talents or abilities to serve others. No

matter in what area your particular skill lies it can be used to serve and benefit God's Kingdom. So I urge you to consider how your gifts and talents might be better used. What could you do to make life easier or better for others. Let us learn from the example of today's unlikely hero Tabitha. May we all use the gifts we have been given for God's glory.

2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저는 여러분의 재능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한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기술이 어떤 분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고 유약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영웅 다비다의 사례를 통해 배웁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